

92.10.18

“늘어나는 이혼가정 사회적대책 세워야”

가족문제세미나

이혼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탁아서비스 등 이혼과 관련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서울시와 한국가족학연구회 주최로 16일 열린 '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세미나'에서 성균관대 김순옥 교수는 “자녀의 정서불안정 등 가족문제를 일으키는 이혼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이혼가정의 자녀와 당사자는 물론, 결혼한 부부를 위한 교육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
김 교수는 부부대상의 대책으로 △이혼예방을 위한 부부관계교육 △상담 및 치료 △이혼결과 통찰 교육 △평화적 이혼을 위한 조정·중재·재판 △이혼 뒤 생활 복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 △자녀양육 및 교육 보조 △심리적 지지프로그램을 제안했다. 자녀 대책으로는 △부모의 배려 △부모가 이혼한 자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 배제 △이혼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.